

어린이 안전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자녀의 삶의 질 보장, 부모의 책임 -

한 정 석 명예교수(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질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 면의 혜택을 입고 있다. 일상생활용품도 기계화, 자동화되어 노동력이 감소되었고, 시간절약과 편리하고 간편하게 처리된다. 반면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과거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 전염성질환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명의 위협요인이 '안전사고'다. 선진국은 국민 개개인의 삶이 안전하고 안녕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궁극적 목표를 모든 인류가 꿈꾸는 좋은 나라를 만들에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위한 법과 제도적 행정과 더불어 환경조성, 시설,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참담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귀한 생명의 희생과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씨랜드 사고, 그 외 교통사고 등으로 어린 생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거의 잊혀진 사건으로 기억에서 퇴색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린이의 사고는 경미할지라도 증상이나 후유증이 어른과는 달리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흔히 일반사람들은 사고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라고 치부해 버린다. 안전사고 발생은 90% 이상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인체에 의한 사고가 많다.

1.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 원인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24시간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종 상해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

사고유형과 특성은 연령, 장소에 따라서 발생빈도가 다르다. 어린이의 사고요인은 환경적 요인이 인적 요인보다 발생빈도가 높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가정에서 더욱이 부모나 보호자가 같이 있는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1) 가정에서의 사망

- (1) 14세 이하의 어린이 2,700명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며 이 가운데 70%가 4세 이하이다.
- (2) 화재, 화상 : 매년 약 750명이 사망하며 이중 2/3는 4세 이하이다.
- (3) 익사 400명중 85%가 4세 이하이다.
- (4) 질식사 375명중 80%가 4세 이하이다.

- (5) 숨막힘 200명중 90%가 4세 이하이다.
- (6) 중독 50명 정도이며 이중 60%가 4세 이하이다.
- (7) 사래 : 주로 3세 이하에서 음식물에 의해 발생한다.
- (8) 교살 : 3세 이하에서 95% 발생한다.
- (9) 낙상 : 3세 이하에서 70% 발생하고 남아가 영아보다 발생빈도가 높다.

우리나라 사고실태를 보면, 2,500명의 어린이가 15세 이전에 사망하고 이중 76%가 10세 이하이다. 원인은 교통사고가 50%이며 그 외 익사, 질식, 추락, 화재, 화상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3-4배 높은 수준이며 인구 10만명 당 한국은 24명, 일본은 10명, 영국은 7명이다.

2) 사고장소

- (1) 부엌 : 가스렌지, 칼, 가위, 싱크대, 쓰레기통, 식탁, 부엌바닥
- (2) 거실 : 테이블, 책장, 카펫과 깔개, 문, 계단, 화분, 꽃병
- (3) 방 : 창문 밑, 종이, 베개, 풍선, 옷핀
- (4) 욕실 : 세제, 변기, 욕조, 바닥, 콘센트, 면도기

3) 어린이 성장발달적 특성

- (1) 연령 :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후기
- (2) 성장과 발달 : 운동, 정서, 인지
 - 자유롭고 숙달되어 가는 신체운동발달
 - 탐험에 대한 충동
 - 자아통제력
 - 보존적 행동능력
 - 상상력
 - 호기심

2. 자녀 삶의 질 보장은 부모의 책임

늘 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사고발생 후 관련자를 구속하고 법에 따른 형이 주어지곤 한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살아 돌아오지는 못한다. 인생이란 한번 살고 끝난다. '명사십리 해당화'는 꽃이 지고 죽었다가도 다음 해 봄에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생명은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다.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는 안전도, 즉 안녕상태와 비례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다면 선진국 대열에 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늘상 안전사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거의 '인재'로 결론난다. 안전불감증, 즉 안전 마인드가 없다. 항상 사고발생후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고 안전사고 사전예방대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사고대책은 마치 전쟁이 난 후에 무기를 만들거나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을 파서 주려는 것과 같다. 안전은 생명이며 생존이다. 인간의 생명존중과 양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안전수칙과 질서 규범을 어기지 말고 양심적인 인간성을 회복하여야 하며 정부차원에서고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1)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녀는 부모에게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천금같은 돈이나 어떤 권력의 힘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부모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대리인과 같은 희망적인 존재이다.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산다. 자녀의 성공을 마치 부모 자신의 성취인 듯 하고 자식이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자신의 몫인 양 죄의식을 갖고 마음속 깊이 통곡하며 속죄를 한다. 자녀는 그 가문을 이어가는 상속자이다. 명예, 혈통, 전통을 지키고 이어주길 바래서 Brain wash를 하곤 한다. 종족의 보존이라는 면도 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여 한정된 삶으로 끝난다. 그러나 자녀가 있으며 부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분신이 된다. 이 귀한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여 양질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옥이나 금이나 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녀일지라도 가정과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으로 용기있게 내보내야 한다.

2) 올바른 자녀의 성장을 위한 부모의 교육

오늘날 만연되고 병폐화 되어진 역지현상의 자녀교육은 지금과 같아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부모의 욕심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똑똑한 아이로만 키우기 위해서 조기교육, 영재교육, 천재교육의 몰입만 하고 완숙한 인성이나 품성 도야를 외면한 교육은 '탈인간화' 교육이다. 자녀의 출산수가 적다보니 과잉보호 속에서 '공주병', '왕자병'같은 중증의 병에 걸려 있다. '기'만 살려 주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몰라서 인간관계에 에티켓도 모르는 안하무인격의 이기주의로 행동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가정교육이 원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습관형성도 되기 전에 유아기부터 한글, 피아노, 미술 등 심지어 영어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60-70%가 터득되고 있다. 지식만 많다고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능력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EQ, CQ, SQ에 대해 관심이 높다. 지식위주의 영재교육보다 참고 건디고 베푸는 극기훈련의 일면인 EQ를 높여주고, 창의력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져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다.

3)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어린이는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사는 모습, 행동, 태도, 습관 등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면서 작은 실수 까지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 Freud에 의하면 인간의 양심, 도덕성은 4-5세 때 그 본성 깊숙이 자리잡는다고 한다. 부모가 가르치는 또는 부모의 행동이 그대로 비춰져서 어린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다. Piaget에 의하면 2-7세가 교육이 잘 되는 시기라고 한다. 어린이에게 비친 모든 것, 경험한 것은 모두 고성능 녹음기와도 같이 어린이 뇌에 세밀하게 입력되며, 정신성장의 약 90%가 3세 이전에 형성되고 있으며 3세 이전에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자이며 가정은 최초의 교육장이며 영원한 곳이다. 널리 알려진 2가지의 일화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일화는, 옛날 고려장 시절에 망령난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

서 버리고 떠나오려는데 어린 자식이 지계를 갖고 내려오자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그대로 버리고 오자고 하니까 어린 아들이 다음에 아버지가 늘고 망령나면 그 때 쓴다고 하여 노인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인도 켈커타에서 목사부부가 늑대에 의해 키워졌음직한 두 소년을 데려다가 온갖 정성을 들여 '인간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으나 결국 실패한 일화가 있다. 어린 시절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이야기이다.

4) 부모의 역할

이 세상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밭농사, 논농사를 망치면 다음 해에 다시 기대하겠지만 자식 농사가 잘못되면 영원한 십자가를 지는 격이다. 직업은 바꿀 수 있고 싫으면 사표를 낼 수도 있으나 자식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인간보다 훨씬 낫다는 조류에게도 새끼교육이 있다. 황새나 두루미 같은 것도 처음에는 먹이를 입안에서 씹어서 새끼에게 먹이다가 날이 가면서 새끼가 혼자 먹이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날개짓을 가르친다. 새끼에게 날개짓 방법을 시범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다. 산업사회에 들면서 부모의 역할과 기능, 책임이 변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은 다르다 하여도 근본적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인간교육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에게 몸소 말과 행동으로 사회규범, 윤리, 도덕을 그대로 바르게 옮기며 사회에는 규칙과 질서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풍부하게 갖게 하여 인생향로의 길잡이 또는 정보제공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근래 과학기술의 발달로 도덕, 가치, 윤리문제가 황폐화되고 있기에 인간회복의 지름길은 오직 부모의 역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안전교육

안전교육이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다. 단 1회의 교육실시 여부에 따라서 생존과 사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쳐서도 안되며, 안전에 관한 올바른 태도 및 습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생활에서 질서와 안전수칙 지키는 습관이 생활화되고 자녀에게 좋은 모범 행동을 보이게 하는 것이 '참 안전교육'이다. 일례로써, 우리는 마이카시대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부모가 완전히 차가 정차한 후에 타고 내리는 법,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 어린이를 보호장구에 앉히는 것, 주행시 창문을 열고 손이나 목을 내밀지 않는 것, 신호등을 지키는 것, 과속하지 않는 것 등의 실천사항을 지켜 스스로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시범을 보일 수 있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생명을 보존하고 양질의 삶을 사는데 절대적이며 '첫째도 마지막도 안전교육'이다.

6)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는 안전지침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일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보다 훨씬 비극적이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계를 이끌어 갈, 그리고 우리에게 노벨상을 안겨 줄 주인공이 될 지도 모르는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면 국가적, 세계적 손실이다.

자녀 양육태도에는 다른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적이며 '안전'이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어린이

는 환경과 접촉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 직접 간접적으로 접했던 경험은 머리에 각인이 되어 훗날 재생이 된다. 솔로몬은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1) 생후 1년

- 아기자리의 위나 주변은 항상 청결, 정돈한다.
- 아기 침대를 구입할 경우는 견고하고 안전한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선택한다.
- 아기를 재울 때는 똑바로 보다는 옆으로 눕히는 것이 안전하다.
- 형이나 언니가 아기를 마구 다루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어린이에게 아기를 맡기지 않는다.
- 잠 잘 때 우유를 먹이거나 우유병을 물은 채 잠들면 치아가 상한다.
- 뜨거운 것은 아기로부터 멀리 둘수록 안전하다.
- 아기를 높은 곳에 올려놓지 않는다.
- 얇은 문턱도 아기에게는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
- 방바닥에 널려있는 물건은 항상 깨끗하게 치운다.
- 주변에 아기가 입에 넣을 만한 작은 물건이 없는지 살펴본다.
- 담배연기는 아기의 폐나 뇌의 성장, 발육에 해를 준다.
- 아기들은 무엇이든 먹기 때문에 중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 집안의 모든 콘센트에는 안전커버를 끼운다.
- 아기들은 2-3cm도 채 안 되는 얇은 물에도 빠질 수 있다.

(2)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아 안전사고

- 뜨거운 음식을 조심한다.
- 다림질은 아기가 잘 때만 한다.
- 전기밥솥은 꼭 받침대에 올려놓고 사용한다.
- 아기들은 무엇이든 발판으로 사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 늘어지는 식탁보는 안 된다.
- 위험한 물건이나 깨지는 물건은 모두 치운다.
- 아기들은 어른을 흉내내서 귀와 콧속을 찔러보기도 한다.
- 아기에게는 술도 커피도 모두 맛있는 음료일 뿐이다.
- 아기들의 장난으로 화재가 날 수 있다.
- 불이 났을 때 대처방법을 가르친다.
- 선풍기에는 꼭 망을 씌운다.
- 창문에는 보조 철망을 설치한다.
- 바닥에 쏟아진 물은 재빨리 닦아, 제거한다.
- 약상자 단속은 철저히 한다.
- 반짓고리에는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가득하다.
-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층계를 조심한다.
- 테이블이나 가구의 모서리에는 안전커버를 씌운다.

(3) 집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아 안전사고

- 아기와 함께라면 엄마는 한 두 템포 느리게 행동한다.
- 정원이나 야외에서 꽃이나 식물을 따먹을 수도 있다.
- 아기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는 선수이다.
- 아기들 피부는 햇볕에도 화상을 입는다.
- 물 가까이에 아기를 혼자 두지 않는다.
- 아기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르친다.
-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다.
- 아기에게 집 연락처가 새겨진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 준다.
- 회전문과 투명 유리문을 조심한다.
- 아기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한다.
-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금지시킨다.
- 아이에게 총알이 있는 장난감 총을 사주지 않는다.
- 놀이터에서도 사고로 상해를 입는다.
-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이 가까이 다가 올 때나 귀여워서 만질 때 안전한 방법을 알려준다.

(4)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 아기를 위하여 보조장구를 장만하고 어린이는 꼭 뒷자리에 앉힌다.
- 아기를 안고 승용차를 탈 때나 내릴 때에는 머리를 조심한다.
-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차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한다.
-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내릴 때에는 아이를 먼저 태우고, 나중에 내리게 한다.
- 아이가 타고 있는 쪽의 차문이나 유리문은 꼭 잠근다.
- 아기를 차 속에 혼자 두면 위험하다.
- 버스 안에서는 아기 손을 꼭 잡는다.
-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는 미리 좌우를 살핀다.
- 버스에서 내린 후에 특히 조심한다.
- 주차된 차의 앞 또는 뒤에서 놀지 못하게 한다.
- 주차장은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 차가 다니는 골목길이나 차도에서의 공놀이는 하지 못하도록 한다.
- 애완용 개나 고양이와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안거나 줄을 채운 채로 건넌다.
- 정차해 있는 차 옆으로는 가지 못하게 한다.
- 자전거를 사주기 전에 미리 안전교육을 시킨다.
- 롤러 스케이트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타도록 한다.
- 갑자기 뛰어가면 위험하다는 주의를 준다.
- 비가 오는 날에는 투명우산을 쓰도록 한다.
- 밤에는 색상 옷을 입힌다.
- 신호가 바뀌면 하나, 둘, 셋을 센 후 건너라고 가르친다.
- 길 건너편에서 친구가 부를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